관계부처 합동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7년 11월 6일 조간(11. 5.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오흔진 과장/ 김나승 사무관
			044-201-6950/ 6956
		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강효승 팀장/ 김창수 서기관
			02-2100-7859/ 7858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지원단	백경동 과장/ 장일해 사무관
			044-200-2895/ 2900
		기획재정부 녹색기후기획과	지광철 과장/ 이상홍 사무관
			044-215-8750/ 87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기술협력팀	홍사찬 팀장/ 장정인 사무관
			02-2110-2740/ 2745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김종주 과장 / 임용남 사무관
			044-203-4240 / 4248
	배포일시	2017. 11. 3. / 총 9매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제23차 기후변화 총회 개막

◇ 2018년까지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파리협정 후속협상 가속화

◇ 남태평양의 도서국 피지가 의장을 맡아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에 관한 활발한 논의도 전개될 것

□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이 진행될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3)가 11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다.

○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 작년 제22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후속협상 시한인 2018년을 1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지난 1년 동안의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징검다리와도 같은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에 최종 합의될 의제별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골격을 마련하고, 2018년에 개최될 예정인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의 개최방식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 파리총회 결정문에 따라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

□ 협상 시한을 1년 앞두고 있는 만큼,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협상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 주요 의제는 자발적 공약(NDC), 투명성 체계, 국제 탄소시장 등 감축 관련이지만, 올해는 피지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적응 관련 논의 또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후속협상의 주요 내용>

- **(감축)** 자발적 공약(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 제고를 위해 제출할 때 포함해야 할 정보 및 NDC 달성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 마련
- **(적응)** 적응보고의 목적, 형식, 포함내용, 연계성 등
- **(투명성)** 선진·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점검 체계의 세부적인 운영방식
- **(탄소시장)** UN 감독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도 인정하는 새로운 국제 탄소시장의 설립·운영 방안
- **(재원)**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원 조성 방안 및 재원 제공·수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방안
- **(기타)** 이행·준수 촉진 메커니즘, 기술 프레임워크 등 신설 제도의 구체화

□ 우리 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 등 주요 국가 및 협상그룹과 공조하여 파리협정에 규정된 온도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지침 마련에 기여하고,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선진·개도국 간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5개국으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11-06 09:14:44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1월 16일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약화되지 않도록 파리협정에 대한 지지를 적극 표명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가 적응대책 이행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 더불어 OECD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소가격제 부대행사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관 부대행사 등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며,

○ UNFCCC 사무총장, EU 집행위 기후에너지 위원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인사를 만나 기후변화 협상 전망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당사국총회 기간 중인 11월 14일(현지 시간) 기후변화총회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UNFCCC 주관 '2017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 (2017 UN 'Momentum for Change' Climate Solutions Awards)' 시상식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린카드 제도가 우수 제도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게 된다.

○ 기후변화 감축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에는 그린카드를 비롯한 전 세계 19개 제도가 수상하게 되며, 그린카드 대표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14일 시상식에 이어 16일 수상자 토론에 참석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기후변화 감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김은경 장관은 "파리협정 이행에 따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심화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개요.
2. COP23 한국 홍보관(파빌리온) 개요.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1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 개요

□ **(회의명)**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3)

□ **(일시·장소)** '17. 11. 6(월)~17(금)(고위급회의: 15(수)~16(목)), 독일 본

□ **(참가규모)** 197개 당사국(EU 포함) 정부대표(각료급 포함),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 언론 등 약 2만여 명 참가 예상

○ **(우리나라)** 환경부장관(수석대표), 외교부, 국조실,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대표단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

□ **회의 구성(안)**

try of Trade,
try and Energy

회의 구분	1주차(11.6~12)							2주차(11.13~17)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개회									COP·CMP CMA·공동 고위급 회의		폐회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CMP)	개회											폐회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	재개											폐회
파리협정 특별작업반회의(APA)		재개								폐회		
부속기구회의(SBI, SBSTA)	개회									폐회		
부대행사(워크숍, 전시회 등)												

○ **(COP·CMP·CMA)** 11.6 개회하여 의제 채택 후, 실무협상 진행

○ **(고위급회의)** COP/CMP/CMA 합동으로 개회하여 각국·협상그룹의 **기조연설**(national statement)과 **공식 고위급 행사** 등으로 구성

○ **(실무협상)** APA, SBI, SBSTA에서 의제별로 실무협상 진행

○ **(부대행사)** 당사국·국제기구·NGO 등이 주관하여 워크숍 등 개최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11-06 09:14:44

붙임2 COP23 한국 홍보관(파빌리온) 개요

□ COP23 한국 홍보관 개요

○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정책·국제협력 등) 홍보*

* 부대행사(세미나) 개최, 정책 홍보영상 상영, 홍보 데스크 운영 등

○ **(기간·장소)** '17.11.6(월)~17(금), COP23 Bonn Zone

□ 주요 부대행사 프로그램

날짜	시간	주관기관	행사명
11/8 (수)	13:00-15:0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정책연구센터	기후기술 수요공급격차 해소를 위한 남남협력 촉진
11/9 (목)	10:00-12:00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파리협정 투명성체계를 위한 국제협력사업 우수사례 공유
	13:00-15:00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아시아 청년 담론: 신기후체제와 청년의 관점
	16:00-18:00	외교부	월경성 대기오염 저감 증진: 인간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대기오염 저감 방안
11/10 (금)	10:00-12:00	광주과학기술원 국제환경연구소	기후변화 적응기술 수요 및 국제협력(남남/삼자) 증진
	14:00-15:00	국회기후변화포럼	한국 사회공동체의 기후변화 대응 사례와 과제
	15:30-17:30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Leadership in Achieving the Paris Agreement - One country at a time(GGGI's NDC Alliance)
11/13 (월)	10:00-12:00	고려대학교/한국기후변화학회/ IIASA/Mid-Latitude R/D Network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중위도 지역의 물-음식-생태계 리질리언스
	13:00-15:00	한국환경공단/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아시아·태평양 지역 탄소시장 연계를 위한 방안
	16:00-18:00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 정책센터 (CSDLAP)/아시아-유럽 재단 (Asia-Europe Foundation)	아시아-유럽에서 저탄소 사회를 위한 기후·에너지 정책
11/14 (화)	10:00-12:00	인천광역시 녹색기후과	도시 및 지방정부의 파리협정 이행방안
	13:00-15:00	(재)기후변화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15:30-17:30	아시아녹화기구/ 한국기후변화학회/UNDP	개도국 산림부문 중심 기후변화 대응 능력형성 방안
11/15 (수)	11:00-12:30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탄소가격제
	13:00-15:00	극지연구소(KOPRI) 미래전략실	IPCC 해양/빙권특별보고서 채택과 한국의 역할
	16:00-18: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글로벌협력실/ 유엔자본개발기금(UNCDF)	과학적 기반의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최빈국의 기후탄력성 증진
11/16 (목)	10:00-12:00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신기후체제 하에서의 기술협력: RD&D 지원에 대한 양자 및 다자 협력 방안 모색
	13:00-15: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경험과 향후 확대방안
	16:00-18: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UNEP/ICLEI	저탄소 녹색조달을 통한 기후변화 해법모색
11/17 (금)	10:00-12:00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시민이 주도하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활동

붙임3 질의응답

1. 이번 당사국총회의 예상 결과물은 무엇인가?

○ 이번 당사국총회의 예상 결과물은 2018년까지 마련하기로 한 파리협정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하는 골격을 협의하고, 2018년에 개최될 촉진적 대화의 개최방식에 합의하는 것임.

○ 상기 두 예상 결과물은 모두 내년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서 채택할 이행지침과 개최할 촉진적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번 회의는 내년 당사국회의로 향하는 중간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 2017 UN 'Momentum for Change' Climate Solutions Awards는 어떠한 시상식인가?

try of Trade,
try and Energy

○ 기후변화 감축적응 우범사례 시상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매년 UNFCCC 사무국이 주관하는 시상식임.

- 올해 여성 리더십, 기후친화적 투자 재원 메커니즘, ICT 솔루션, 지구 보건, 탄소중립과 같이 총 5개 분야 19개 수상팀을 선정

3. 그린카드 제도가 수상 예정인 ICT 솔루션 분야는 어떠한 경우에 수상하는 분야인지?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에 수상하는 분야로 올해 4개 수상팀을 선정함.

- 그린카드 제도는 신용카드 플랫폼을 통해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감 등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한 사례로 그 혁신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아 수상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11-06 09:14:44

붙임4 전문용어 설명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 1994년 3월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

□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1997년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 선진국과 시장경제전환국가에 대해 2008~2012년 간 1990년 대비 평균 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 2005년 2월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비준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사국이 모여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회의체

□ **신기후체제**

○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의 후속체제로, 선진·개도국 모두에 감축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체제. '15.12월 채택된 파리협정이 그 법적 기반이며, '16.11.4 파리협정 발효

□ **파리협정**

○ 파리협정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의정서(2020년 만료 예정) 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15.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 채택

○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억제(2℃ 이하)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 △저탄소 경제를 위한 재원 확대 등 구체적 하위 목표를 제시

○ 파리협정의 특징은 ▲모든 국가가(선진·개도국) 참여하는 보편적 체제, ▲감축목표를 자율적으로 결정, ▲이행상황의 주기적(5년) 점검, ▲목표 수준 점진적 강화(진전원칙) 명시, ▲재원(제9조), 기술(제10조), 역량배양(제11조) 등 구체적 이행수단 명시 등

□ **자발적 공약**(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2013년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당시 협상 중이었던 국제조약(현재의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적응정책 등을 각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기여방안을 마련하고, 아직 해당 조약이 발효되지 않았으므로 의도된(intended)을 붙여 INDC(의도된 자발적 공약)라고 명명

○ 파리협정이 채택('15.12월)되고 발효('16.11월)된 후로는, 파리협정을 비준할 때 달리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하였던 의도된 자발적 공약(INDC)가 자발적 공약(NDC)로 확정

□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

○ 제2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따라 파리협정 제4조제1항에 언급된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개별 국가의 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집합적 노력을 점검하는 것이 특징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11-06 09:14:44